



올해 1분기 K-조선 수주액 136억 달러로 세계 1위 기록

- 분기별 실적 기준 3년 만에 세계 1위 복귀, 수출은 8개월 연속 플러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4.1분기 우리나라의 선박 수주액이 136억 달러로 중국을 앞지르면서 세계 1위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1분기 한국 수주액은 '23년 연간 수주액(299억 달러)의 약 45.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분기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이 세계 1위를 달성한 것은 '21.4분기 이후 3년 만의 쾌거이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24.4.2일 기준)에 따르면 '24.1분기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은 13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1.4% 증가하면서 중국 선박 수주액인 126억 달러를 앞질렀으며, '24.1분기 전세계 수주의 약 44.7%를 점유하면서 국내 조선소 순위가 바로 세계조선소 순위*가 되는 조선산업의 신화를 이어 나가고 있다. '24.1분기 수주량의 경우 우리나라는 449만CGT(표준환산톤수)로 중국(490만CGT) 보다 다소 적지만 전년동기대비 한국은 32.9% 증가, 중국은 0.1% 감소하여 한국 조선산업은 성장세를 이어 갔다.

* 세계 조선소 순위(CGT 기준, '24.3월) : ①HD현대중공업, ②삼성중공업, ③한화오션

아울러 3월 수주량만 보면 우리나라는 105만CGT로 중국(73만CGT)을 앞섰으며, 특히 선박 수출은 '23.7월 이후 8개월 연속 플러스 기록을 이어가면서 우리나라 수출 회복을 이끌고 있다.

그간 우리 조선산업은 탈탄소·디지털 전환의 세계적 흐름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수주를 하였으며, 올해 1분기에는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발주된 친환경 선박인 LNG선(29척), 암모니아선(20척)의 100%를 수주하는 실적을 나타냈다. 특히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K-조선 차세대 선도전략'을 발표하고 올해 3월에는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를 발족하여 민관 원팀으로 향후 5년간 9조원 투자를 통한 초격차 기술 확보, 국내 인력 양성 및 외국인력 도입 등 조선산업의 당면 과제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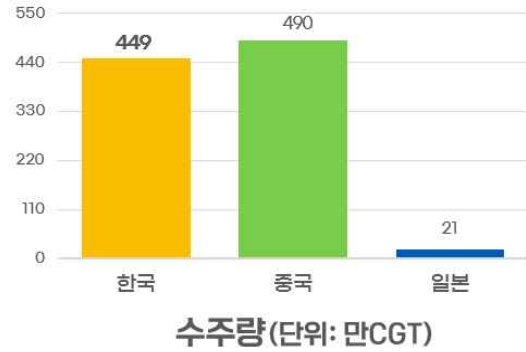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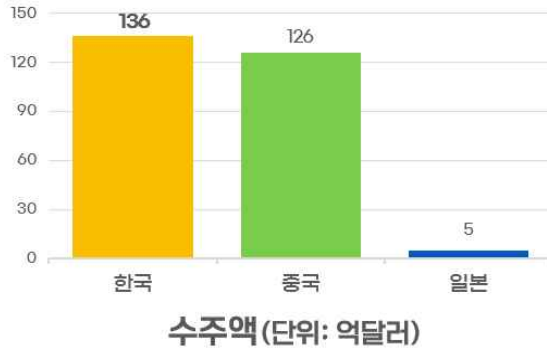
산업부는 올해 7,000억 달러 수출 달성에 있어 조선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올해 상반기에는 'K-조선 초격차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중소조선소의 경쟁력 강화와 조선 기자재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친환경·자율운항선박 등 조선 분야 신산업에 있어서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력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고 우리 조선산업이 미래 글로벌 조선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의중 (044-203-4330)
	조선해양플랜트과	담당자	서기관	이주노 (044-203-4331)
			주무관	도은지 (044-203-4338)

참고

2024년 1분기 조선산업 주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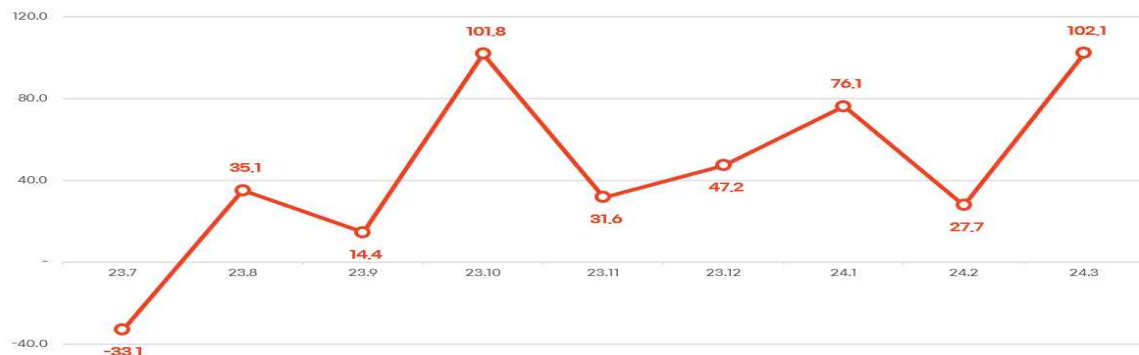
✓ 한·중·일 1분기 수주액 및 수주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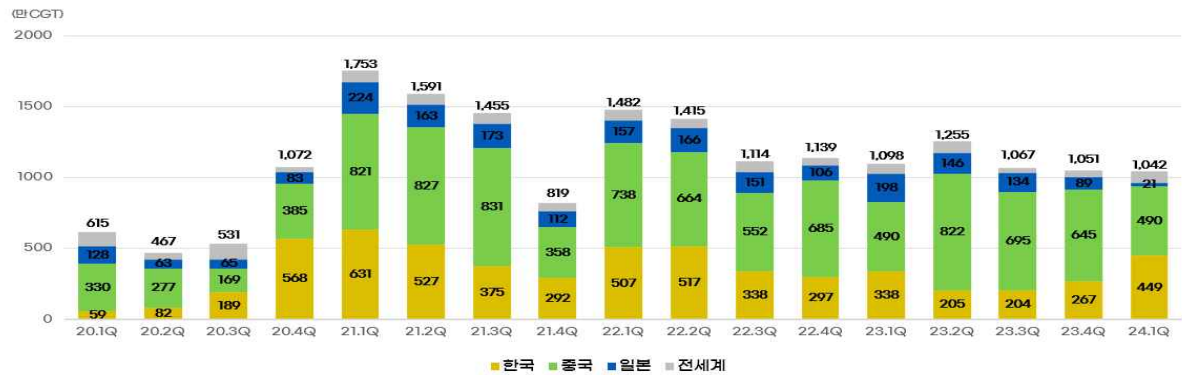
✓ 한·중·일 수주액('20.1분기~'24.1분기)



✓ 선박 수출 증감률(%,'23.7월~'24.3월)



✓ 한·중·일 수주량('20.1분기~'24.1분기)



✓ 한·중·일 수주 점유율(CGT기준, '20.1분기~'24.1분기)

